

전남서李총리 愼긴 文대통령...지역 정치인들 거취는?

개각 압박 상황서 이낙연 총리 극찬... 3개월 더 자리 지키면 '최장수 총리' 이개호 장관 교체 · 민형배 비서관 사퇴 유력...강기정 정부수석 목록부담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정된 개각을 앞두고 내년 4월 21대 총선과 맞물려 정부와 청와대에 있는 지역 정치인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3개월 더 자리를 지키면 최장수 총리로 불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유임 여부 등이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16일 전남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전국경제투어 일 번째로 전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이 총리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드러내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주 고평읍에

서 지역 경제인과의 만찬 겸 간담회에서 "이낙연 총리님이 전직 도지사로 전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전남 경제를 아주 꼼꼼하고 열심히 챙겨 주신다"며 이 총리를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의 이 총리에 대한 극찬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역 정가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국내외적으로 얽히고 설켜 정세속에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런 화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조만간 개각이 있지만, 총리를 좀 더 곁에 두고 싶다는 대통령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

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이 총리의 유임 가능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봐도 문 대통령의 사전 '인사포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논리 중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통'인 이 총리가 사태 해결 때까지 총리직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총리의 유임이 결정되면 내관을 꾸리는 이 총리의 입장에서 특이 필자, 독이 필자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호남 대통령'을 갈망하는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내년 21대 총선 출마 예정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교체는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역구인 영광·함평·장성·담양에서 3선 도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려면 총선 출마는 첫 관문이다. 장관 교체가 끝나면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의 사퇴도 유력하다.

민 비서관은 시장으로 간 이윤섭 광주시장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민 비서관 역시 내년 총선에서 광산을 당선 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여 사활을 걸 것이 분명하다.

강기정 정부수석은 향후 거취에 대해 가장 말을 아끼고 있다.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지역 조직은 조용히 추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광주시장 도전이 접착지는 강 수석은 입각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개각을 앞두고 지역출신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서 "총선과 대선, 광역단체장 선거의 관계속에서 어떤 결정과 결과와 나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윤석열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인사

추경 정국 경색...野 "文대통령, 내놓고 국회 무시"

신임 검찰총장 윤석열 프로필



윤석열 (59)
1960년, 서울

총임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7)

- 대구지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산지검 검사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의정부지검 교양지청 부부장검사
-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
-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 대검찰청 중수2과 과장
- 대검찰청 중수1과 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 지청장
- 대구고검 검사 - 대전고검 검사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 팀장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준학 전 중소기업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광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과 관련 "의회모욕·의회무시, 국민모욕·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임명 재가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내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내놓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文대통령-5당 대표 내일 청와대 회동

日수출규제 중점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 동안 열린다. 회동의 주된 의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사태가 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여야 5당 사무총장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의제에 논의한 결과 등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규제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이번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선다. 그밖에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윤 사무총장은 "(5당) 협의 결과 지금 사상 초유의 한일 간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 해결해나가기 위해 여야 5당의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동 의제에 관해선 "의제 외에 논의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10월 이후 9개월 만에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각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

도 있을 것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없이 말씀을 청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일정, 의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됐다"며 "이날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각 당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5당 대표 회동 후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독회담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양자 회동 형식에 관해선 저희들이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회동 후 만난 여야에 관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회동을 하지 않나. 딱 오후 6시에 끝나는 건 아닐 것 같다. 대화는 깊어지거나 넓어지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예상하기로는 만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어제 알려지기로는 만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시간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워낙 중차대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티타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식사 하면서 편한 분위기보다는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는 데 대해 각 당에서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회동 관련 의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영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전날 있었던 사전 협의에서는 회동 의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나타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한정하길 원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폭탄 사건, 남북이 판문점 정상회담 등 국정 전반까지 확대하길 바랐다.

이날 2차 협의 결과 일본 수출 규제 의제를 주로 논의하되 나머지 현안도 별다른 구분 없이 다루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에 "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해도 좋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굳이 무슨 사안, 무슨 사안이라는 것을 열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